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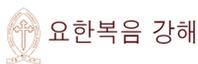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II

(요 1: 19-27)

이종윤 원로목사

3. 요한의 증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요 1:20)

(1)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들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그들의 질문에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더구나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예’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인격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나는 광야의 소리다.

요한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쑥이 없는 소리는 무의미한 잡소리밖에 안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메시아의 오심도 무시하고, 정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리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세례 요한, 그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높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도 없고 열매도 없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마른 심령에 들려지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3)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물세례를 주지만 참 세례, 곧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비록 이 세상에 먼저 왔지만 나중에 오신 그 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지적합니다. 요

한의 겸손은 위대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침티스모스’ 혹은 ‘침티조’ 라는 말로 ‘잠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씻긴다’ 혹은 ‘씻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4, 누가복음 11:38, 디도서 3:5은 전부 다 이 ‘씻긴다’는 뜻으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표인 것입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씻으심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한 신앙과 연령에 이르렀을 때는 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4) 나는 그의 종이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백성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요한은 당시 예수님과 대조하면 엄청난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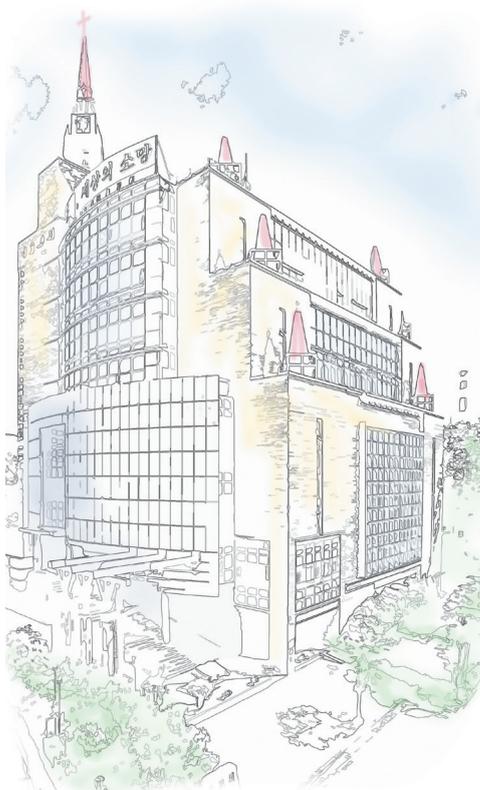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심이 없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론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는 자신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흥미있는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야심도 없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광야의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유익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요청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 사명자대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10. 6(주)-11. 24(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18(월) - 11. 23(토) 새벽 5:00 ~ 6:00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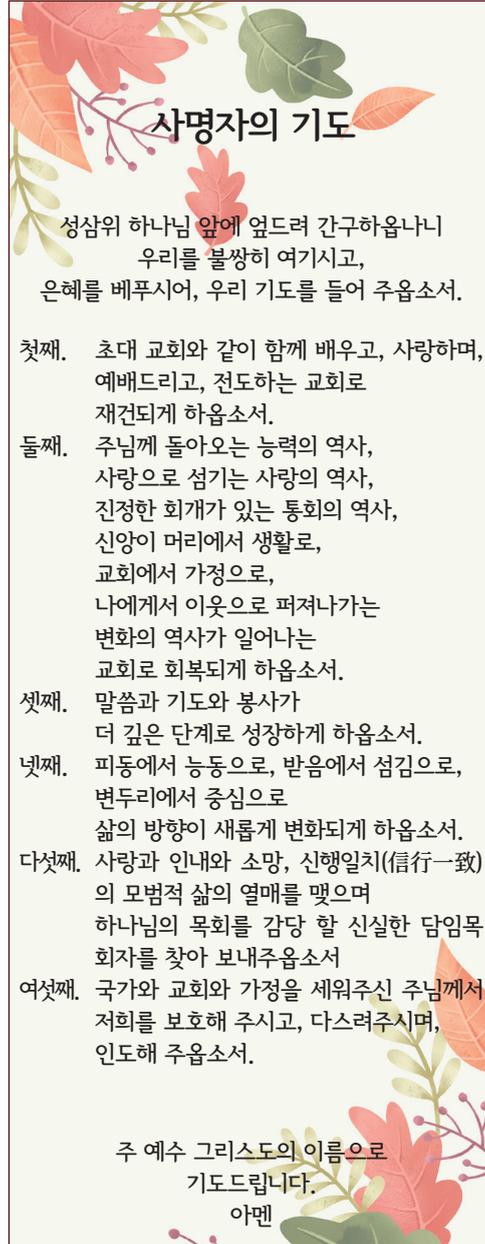
2019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한 2019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는 현재 절체절명의 시기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9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사명자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첫째. 초대 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둘째.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역사,
진정한 회개가 있는 통회의 역사,
신앙이 머리에서 생활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셋째.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넷째. 피동에서 능동으로, 받음에서 섬김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사랑과 인내와 소망, 신행일치(信行一致)
의 모범적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 할 신실한 담임목
회자를 찾아 보내주옵소서

여섯째.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서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지 OUT!

우리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동식·유하영 석상화 문동진·김은정
주하은, 주하연 이정자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교구별 연합모임 갖는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골 2:2)

당회(서기: 임상현 장로)는 2019 사명자대회를 앞두고 교구별 연합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교구별 연합모임이 성도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분쟁으로 교회 출석을 미루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까지 독려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장소는 교구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교구	날짜	교구	날짜
1교구	10월 5일/토	9교구	10월 9일/수
2교구	10월 9일/수	10교구	10월 12일/토
3교구	10월 18일/금	11교구	10월 19일/토
4교구	10월 19일/토	12교구	10월 9일/수
5교구	10월 26일/토	13교구	10월 3일/목
6교구	10월 9일/수	14교구	10월 19일/토
7교구	11월 2일/토	15교구	10월 9일/수
8교구	9월 19일/목	16교구	10월 5일/토

9월·10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9월 29일: 최용준(한방)
- 10월 6일: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신경외과)
- 10월 13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10월 20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10월 27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1992년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열린 전가족여름수련회 - 서울교회 설립과 함께 단합을 다지는 기회였다.



오광환 장로
(교구위원장)

우리는 서울교회가 설립 50일을 앞두고 기도와 전도의 사명자로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자는 각오로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출발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전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세우고,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대 목사 부임 이후 많은 사역이 축소되는 등 또 하나의 교회로 변모해 많은 성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자랑스런 교회 전통으로 지켜져 왔고 후임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이를 지키겠다고 공적인 약속까지 하였던 안식년과 재신임투표를 정작 자신의 해당년도가 가까워 오자 순식간에 내팽개치고 교회는 전혀 경험하지

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유의 심각한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강제 철거 현장에서나 활동하던 불법 용역들을 앞세워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하여 평소 임버릇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던 성도들을 내쫓고 출입구를 막으며 용역들로 지키게 하여 본당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행스럽게도 총회재판국과 국가법원의 판결들이 바로 잡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오랜 기간 비좁은 1층 공간 안에서 매주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과 학생들이 함께 각종 예배와 식사, 집회 등으로 각종 활동이 많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올 교회의 회복을 기대하며 힘을 내봅니다.

이에 당회는 그동안 고난을 함께 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사명자대회를 전후하여 좀 더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도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교구별로 연합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교구별 연합모임에는 곧 내려질

대법원판결과 그 이후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올 교회회복을 미리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교회분쟁 때문에 교회 출석을 미루고 있던 성도들은 물론 교회분쟁의 모습으로 마음이 상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까지 다시 독려하여 함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들은 물론 특히 다락방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연락하고 기도로 열심을 내며 그 열기를 사명자대회 내내 이어가 교회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나아가 제 104회기 총회 표어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그동안 잠시 미루었던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는 바쁜 계절이지만, 교구별 연합모임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교회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교구연합예배를 마치고

8교구를
칭찬합니다



손태현 집사
(8교구 간사)

8교구는 9월 19일(목) 연합다락방 예배를 양평 서문석 장로님 댁에서 가졌습니다.

작년 은퇴글에서 이젠 교회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저희 마음을 흔들

어 놓으시더니 이젠 푸근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서장로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일에 은퇴 전에도, 지금도 열심이신 이관규 장로님, 그리고 알곡과도 같으신 8교구 노관사님들과의 모임은 평화로운 시골집의 풍경속에서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았습니다.

첫 시간, 예배에서 조원영 목사님은 '광야'라는 주제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 나침반을 맞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을 통해 나아가 갈 때 광야길이 시험과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날을 기다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서울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주

를 믿는 저희들은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테라스에서 바베큐로 풍성한 점심을 준비해주신 권사님들 덕분에 오후 늦게까지 즐거운 식사와 교제가 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교회와 거리가 멀고 교구 인원도 적은 숫자이지만 저희 8교구는 오랫동안 교구장과 간사를 맡아주셨던 서장로님과 남매 같은 호흡을 보여주시는 서영희 권사님, 두 분의 수고를 통해 교회혼란 속에서도 거의 온전히 성도가 남은 교구로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일마다 먼 길을 오가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쌓아가는 8교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으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다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 다시 굳건하게 설 때까지 주님 손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 위해 저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몸이 안 좋으신 가족들이 계신데도 함께하여 주신 교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직장과 건강 등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교구분들께도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 성경암송대회 예선 본선: 10월 12일(토)



2019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오늘 교회학교별로 치뤄진다. 서울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를 확정 발표하여 많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마태복음 5장-7장 산상수훈이다.

- *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2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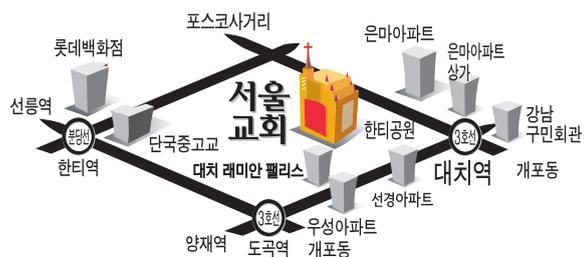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30일	월	마 16-18		시 137-150	
10월1일	화	마 19-21		잠 1-6	
10월2일	수	마 22-23		잠 7-12	
10월3일	목	마 24-25		잠 13-18	
10월4일	금	마 26		잠 19-24	
10월5일	토	마 27-28		잠 25-31	
10월6일	주일	막 1-3		전 1-1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동 정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제33회 기획연주회 「브로드웨이 뮤지컬 II & 시네마 사운드 트랙」 10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시립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 문의 바랍니다.

■ 금주의 식사 : 권한준 성도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쇠고기카레와 김치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구별 연합모임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